

제 162 호

성 가정 축일

1975. 12. 28.

# 쇼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목 상】

## 때문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상 갑

1

또 할 해가 저문다.  
즐겁고 보람된 날들도 많았겠지만, 아쉬움과 허탈한 심  
정으로 보냈던 날들이 더욱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힌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것인지라 한 해의 결산사가 더욱  
적자 루성이인지도 모른다.

그대는 결산을 끝냈는가?  
아직 생각조차 안했다고?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2

「오너 시스템」(Honor System, 名譽制度)라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관학교나 몇몇 학교에서도 이 제도  
를 쓴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시험  
을 치를 때 부정행위를 안하는 것이다.

소위 선진국가의 학교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쓰고 있  
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대학 사회에서 점차로 이 제  
도가 무너져 가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엄격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도대체 바람직한 일은 무엇인가?

3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불신(不信)의 안개가 짙  
어지고 있다고 말해서 잘못인가?

그대는 왜 자꾸만 두리번거리는가?  
왜 그렇게 입안에서만 우물우물 하는가?

4

크리스찬의 가슴이 차츰 식어가고 있다고 말하면 안되  
는가?

한 사람의 의인(義人)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법인지  
라, 아직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실망할 단계는 물  
론 아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는 말이다.

크리스찬인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 해를 보내겠는  
가?

5

우리는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교구 명신도 사도직 협의회 사무국장)

### 성 가정 축일

## ✽이 주일의 미사✽

가톨릭 기도서 p 233

#### (1) 개회식

□입당송 목자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구유에 누운 아기  
와 마리아와 요셉이 있더라.

####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시라 3:3-7, 14-17)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한다.

□찬미송 ◎하느님을 두려워 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복되이라 하느님을 두려워 하고/그 도를 따는 자는/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제2독서 (골로사이 3:12-21 성서 p 460)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 생활.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는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 풍부히 너희 안에 계  
시리라. 알렐루야.

□복음 (루카 2:22-40 성서 p 127)

아기는 자라며 지혜가 가득했다.

#### □신자들의 기도

1. 75년의 마지막 주일이며 성 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주께 비오니, 나의 가정생활은 (?) 신앙 생활(?)은 어떠  
에하였나 자신을 살피어 내년도엔 새롭운 계획과 신념하  
당신을 담은 생활을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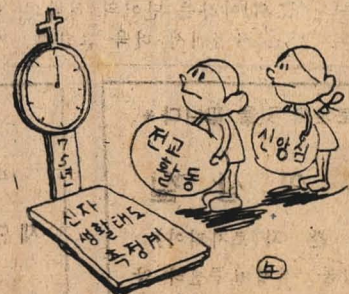
2. 성 가정을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 주신 주여! 우  
리 가정을 비추어 주시어 성 가정을 참으로 본받아 이  
사회의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소서◎

3. 사랑이신 주여! 우리 형제들 중 고통당하는 형제  
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내게 베풀었다고 하였나니 사  
랑 베풀기 보다는 자신의 오만과 이기만에 집념하는 우  
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시어 우리 모두 사랑을 베풀  
는 한 형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찬의 전례 □불헌 □성찬식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땅에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함  
계시도다.

## 쇼정이 산책



알아 보십시오  
영말을 통하여 당신도

# 75년을 되돌아 본다

25년만에 맞는 성년(聖年)이었던 1975년을 우리 교구는 「공의회 정신을 연구 실천하는 해」로 정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뛰었다. 정말로 잘 뛰었다, 여러차례의 교육이 바로 그 연구였고 진리를 밝히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는 “비크리스찬적 타협을 일체 배격한다”고 한 입으로 외치고 기도했으며 일치를 보였다.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았다.

75년은 교육의 해였다. 교육의 성과를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없기에 여러가지로 말할 수는 있으나, 여하튼 많은 교육이 있었다. 사목현장 연수회, 공동체목상회, 본당과 공소의 순회교육, 교구 산하 기관인 성심과 해성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수회, 농촌 문제 세미나, 제1차 여성 꾸르실료 등 이루 다 예거할 수가 없을 정도다.

물론 문제는 있었다.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을 세워 진행시킨 사목구의 의욕과 이를 받아드리는 측의 그것이 교차점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교육이 생활화되지 못한 풍토로서 지나친 의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고, 수용태세가 좋을 수도 없었다.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피교육자의 수용태도는 도시 본당에 잘 수록 현저하게 문제점을 보여 주었다. 프로그램의 빈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무보수로 봉사한 강사들의 입장을 너무나 이해해주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보고 싶다. 시골 본당이나 공소에서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는데 도시 본당, 특히 전주 시내 본당의 수강태세는 무어라 표현하기가 어렵다.

보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에는 일본 공동체 목상회를 지도하는 프로케즈 신부를 초빙한 일을 손꼽을 수가 있다. 사제들만의 피정 프로그램을 문호개방하여 수도자와 평신도를 초대하여 함께 배우고 대화를 나누며 생활을 나눈 점은 그야말로 공의회 정신의 연구와 실천에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교구 산하 기간인 성심학교와 해성학교에 큰 비중을 주어 양학교에 종교감을 임명하고 준본당(準本堂)으로 취급(?)한다고 들었다. 그간 종교감들의 노력과 학교 당국의 협조로 망부활절 연수회를 가져 오다가 금년부터는 동계 방학을 이용한 연수 프로그램이 추가된 일은 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학교나 병원이나 농장, 모두가 그 설립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은 꾸준히 연구되고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날 사립학교들이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잘못된 교육풍토에서 볼 때 그렇고, 인술(仁術)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이 망각되어가는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평신도 활

동에 대해서 살펴 보자. 우리 교구는 평신도들의 활동이 다른 교구에 비해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교님 이하 신부님들의 평신도들에 대한 크나큰 이해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간 사목 협의회라는 조직으로 교구단위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10월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약칭 全州敎區 平協)으로 옷을 바꾸어 입고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다.

평신도들이 개척해낸 특수 사목 분야가 많이 있다. 하나는 하나는 교도소요. 하나는 향토사단이다. 사제의 부족으로 그간 거의 방치되었던 교도소가 한 평신도의 노력으로 두드러진 성과를 보게 되었다. 영세는 물론, 수인들로 조직된 레치오 마리에 활동이 꿈틀거릴 정도이다. 그 산도는 차동주씨이고 그를 도우는 신부·수녀 평신도들의 활약이 눈물겨울다.

향토사단만 하더라도 그렇다. 국토방위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틈을 내어 활동한 몇몇 장교의 사령들의 노력으로 금년 성탄에 참모장을 비롯한 12명의 군인들이 성세를 받았다. 향토사단의 교우 장병들은 익산 나환자촌 공소를 찾아 진료도 해주고 조그마한 선물까지도 전했다.

사제양성 후원 사업은 그간 여러 교우들의 협조로 그 기금이 1,000여만원에 헤아리게 되었으나, 아직도 그 참여도가 부족하기 이르 말할 수 없다. 심지어는 본당 자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그냥 넘기기에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익산 농장 나환자촌 공소 건립 문제도 그렇다 우리에게 크리스토다운 사랑이, 형제애가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교회의 대성적인 자립 문제도 각 본당마다 심각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교구청이 준공식도 갖지 못하며 슬그머니(?) 이사를 해 버리고, 직원들의 인건비나 은퇴 신부님들과 특수 사목 신부님들에 대한 생활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점은 누구의 일인가?

1975년을 되돌아 보아 다가오는 1976년을 보다 뜻있게 지내보자고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한 점 양찰 바랍니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삼성전주센터 앞

전화 ② 6219

## 김용길양복점

교우 여러분과 결혼 예물은

특별염가 제공

재단사 정병준 (정아우스티노)

전주 중앙동 조흥은행 앞

전화 ② 3519

※교우들의 집단장은!※

## 동양페인트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판매\*  
(단 교우에 한함)

전주 뇌병원 옆

전화 ② 2765·5986

# 『또 한 해를 보내며』

조 정 오

마지막 남은 달력 종이 가 짙은 창녀의 웃음을 짓고 있다. 질게 화장한 지난 1년의 나날들이 역겹게도 끈두박질 해 온다. 한 해를 마무리 하여 마지막 장에 질게 뭉개어 벽에 매달던 반성, 너는 물구나무서겠지? 퇴색한 숫자 하나 하나에서 마다 무의미한 발견하던 반성, 너 작년 이맘 때도 이같은 짓을 되풀이 했었지...

정수리에 와 박히는 쇠스랑의 무딘 끝을 의식하면서 보낸 날들, 문둥병 걸린 내 몸의 손가락 마디가 하나 하나 푹푹 떨어져 나가던 날, 이제 남은 반마디의 손가락을 감싸쥐고 통곡해 본들 너 무엇이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가? 거액(巨額)의 기부금 앞에 개침 흘리던 너 그 앞에서 오금을 못꿨다. 모방을 해놓고도 잘 됐다 고 손뼉치며 좋아하던 네가 아니었던가? 녹슨 해골 위에 몽땅한 연필에 침발라가며 열심히 열심히 무의미한 낙서들만 잔뜩 갈겨 써 놓은 나날들이 아니었던가?

해마다 이맘 때 사람들은 모두다 한 장의 남은 달력 종이를 볼 때마다 또 한번 쓰디 쓴 일년을 회고해 본다. 손톱 밑을 찢리는 듯한 아픔의 웅어리들,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마르히와의 연기들, 발바닥을 침식하는 Virus에 의한 가려움의 나날 들. 그러나 환회와 고통의 날들은 이제 지나가 버린 것, 너무도 쉽게 체념하며 새로이 떠오르는 환한 얼굴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새 마음 새 자세로 새 일기장에 새 연필로 새 날들을 채워가겠지. 그러나 몇 장을 넘기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보내고 또다시 이맘때면 어리석음을 반복한다. 그해보았자 아픔이 술맛으로 변할리 없고, 스스로 위로하는 한숨이 끊어지지 않으며, 후회파도 시원치 않을 무름이 아닌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아니 지금을 짓씌어서 분자까지도 분석하여 진수(眞髓)를 맛봄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는 데에만 고통이 있다”고 소피아 바라는 말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Bahal(바알)들이! 우리의 등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시력이 둔해져 매사에서 그리스도의 손때 묻은 것을 못보지 않는가? 한 방울 눈물의 뜨거움에 손 대지 않은 자는 애꿎은 성냥개비만 짓씌을 뿐이다.

“독사의 무리들아! 새 날은 이미 왔느니라.” 무슨 핑계가 그러도 많은가? “핑계란 쓰레기 더미 위의 눈과 같다”고 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말하지 않았는가? 어찌할 수 없었다는 자위보다는 메니큐어를 벗겨 우리 손톱의 건강함을 과시해 보자. 새 날이 오라고 손짓하며 부른다면 우리에게 죽음의 한 걸음 다가올 뿐이다. 반성, 너야 뜨거운 한 방울 참회의 눈물보다 값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달력이 13장이 되어도 오늘에, 아니 지금에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자. 그리하여 내년 이맘 때 새로운 열 팔렌들을 더불어 그리스도께 선포하며 부끄러움을 면하자.

또 한 해를 보내며 망발이 되지 않기를...

## 요십이 (128) 김병오

요십이 만화내용이 충실치 못하다는 여론이 많아 나도 인정해

너때문에 윤정이 인쇄비만 많이 든단 말이야

윤정과 교회를 위하여 두끼해와 더불어 물러가야지

(만 2년 6개월 동안 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뽀이 뽀이)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0 1 3  
김 원 준(야교버)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옆 중앙 시장동  
(전화 ⑤ 4577)

격려해 주신 여러 어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강가루표 양말 전북 직매점❖

### 주 주 네 집

□전주 풍남동 은행나무 골목 ⑥508



전주 팔달로 (신광주앞)  
김 광환(원선시오) T 2-3332

\*타자기 수리\*

### 전주 뉴 타자 학원

(전주 간호전문학교 앞)  
전주시 남도중동 605-1  
원장 신 송 무(바오로)  
전화 ⑤ 6 6 6 4

타자기수리, 취업알선, 수시검정

※신자들의 건강 센터※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 사진관(2층)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밑 구 북부애관장 옆  
전화 ⑤ 6544

\*신부화장. 드레스전문\*

(교우 특별 우대)

### 윤경미장원 정화미용학원

이리시 창인동 1가(역전앞)  
전화 4705  
대표 최 윤 경(유리안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1월은 나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돕는 달입니다. \*

1. 평화의 날 신년 교례회: 1일 11시, 가톨릭 센터 주교님을 모시고 모든 형제들이 평화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이자리에 삼가 초대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2. 사제양성 후원회 창립 총집 총회: 1일 12시, 가톨릭 센터
3. 직장인을 위한 공동체 묵상회: 1일 오후 2시-3일, 가톨릭 센터, 회비 3천원
4. 제9차 남성 푸르실료: 1일 오후 5시-4일, 가톨릭 센터, 회비 4천원 (전주교우 5천원)
5. 전주교구 제4지구 중·고등학생 가톨릭 학생의 밤 개최: 29일 오후 7시반, 전동성당에서
6. 대학생 연합회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자리" 1975년 12월 30일 오후 3시~9시 전동성당 성심 유치원에서 (일정) 반성회 및 신·구임원 교체식 기타, (회비) 299원
7. 전주교구 중·고등학생 연합회 및 각 본당 임원연수회: 76년 1월5~6일 (1박 2일) 가톨릭센터에서 (참가비) 1인당 1,300원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람
8. 제7차 전주교구 주일학교 본당 교리교사 연수회: 1976년 1월12일(월)~15(목) 가톨릭센터에서 참가 본당에서는 12월 31일까지 신청 바람
9. L.M 피미씨움 산하 P 연흥 친목회: 1월 3일 오후 2시 (장소) 전동 유치원에서



(중앙)

전화 3651 3874 주임 신부 김보사도, 김희상, 이대림, 권준홍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방지거 상회: 오늘 오후 2시
  3. 꾸리아 연흥 친목회: 1월 1일 오전 9시 30분
- 성탄 특별 헌금 131,290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조, 신부 조해형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
  3. 예비자 교리: 1월 4일부터
  4.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김 규완, 박 남태: 각 7천원 허 쟈마: 5천원  
최 모니카: 3천원 최 방애: 이천원  
주계: 22,000원 누계: 4,270,627원
  - ◎새 성당 의자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이병학, 박윤규, 김인협: 각 3만원 이태영, 송금만: 각 1만원, 강대만: 5천원, 박종용: 1만 5천원  
기타: 22,500원  
주계: 152,500원 누계: 1,174,330원
  - ◎새 성당 전등 회사하여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노마리아, 이누시아, 김가타리나, 이순화: 각 1만원 약속
  - 35사단 선물 25봉 24일 밤 봉사부 부녀회에서 전달
  - 교도소 위문: 봉사분과 부녀회에서 오늘 9시 30분 교도소에 성탄 선물 전달
- 성탄 특별 헌금: 63,160원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용, 김환근, 사도회장 김김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성, 김길호, 사도 회장 사도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철, 김박장, 사도 회장 사도

1. 주일학교 교리반 방학: 토요일 미사는 7시로 옮김
2. 직장인을 위한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에 많은 참석 바람
3. 예비자 교리 실시: 1월 5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밤 7시 30분
4. 사도회 및 애령회: 다음 주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신부 조한양, 사도 회장 사도

1. 글라라 형제회 10주년 기념 피정: 오전 10시~오후 5시 (지도: 오기순 신부님)
  2. 성탄 봉사 분과 자선 활동(가도 모금 123,600원) 봉사 분과 J.O.C  
이웃돕기: 교도소, 일선장병, 35사단, 화재 당한 교우
  3. 가락한 성심여고 2년 4반: (대표) 노경이, 이향명 화재 당한 교우 위해 5,000원 기타
  4. 성탄 단체 교리 퀴즈 시상  
1등: 성 가정회 2등: 장우회, 3등: 성화회
- 성탄 특별 헌금: 179,900원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식	봉헌금
제 1 지구	고김부수신태정	창제안료인용 L. M 꾸리아 회의 매미사후 묵주 기도 실시 성탄절 수고하신 신부님께 감사	26,025원	제 3 지구	주원동 창인동 화	첫 영성제 교리 꾸리아 월례회 망년회	63,540원 52,465원 6,095원
			3,385원			16,170원	중노총 동부서전
제 2 지구	대문울동합	신협 월례회	14,550원	제 4 지구	양동진자동동	예비자 교리 실시 글라라 형제회 10주년 기념 피정	17,430원 84,666원
제 3 지구	고금여산	산산산례 새별 꾸리아 산하P 연흥 친목	13,917원	제 5·6 지구	무장진남순인	사도회 임원회 L. M 연수회 및 친목회 새로운 성가 연습	7,595원 16,355원 5,317원